

전시회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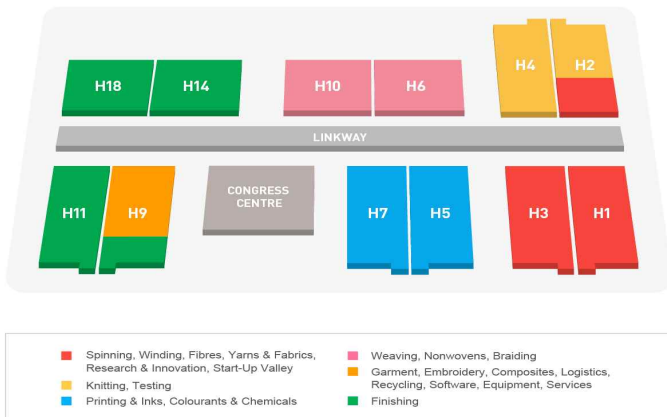
ITMA 2023 전시 홀 계획 공개

2023년 6월 8일에서 14일까지 이탈리아 피에라 밀라노로 (Fiera Milano Rho) 전시장에서 개최되는 ITMA 2023의 전시 홀 계획이 공개되었다. 전시장 규모는 약 20만㎡로, 1층에 총 12개의 홀에 전시회가 개최된다.

신청 업체들은 방직에서 마무리, 소프트웨어, 섬유, 원사 및 직물에 이르기까지 총 20개의 챗터로 분류되어 품목별로 각각의 홀에 분산하여 배치된다. 마감과 방직이라는 가장 큰 두 가지 부문은 전시장의 양 끝에 자리한다. 현재까지 42개국에서 총 1,444개의 업체가 신청하였고 114,230㎡ 이상의 부스 면적이 예약되었다.

ITMA 2023의 프로젝트 디렉터인 Ms. Sylvia Phua는 「전체 면적의 97%가 예약된 상태라 아직 신청하지 않은 업체들에게는 즉시 신청할 것을 촉구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ITMA는 섬유 및 의류 기술과 솔루션에 대한 가장 확고하고 포괄적인 쇼케이스」라며 「지난 2년 동안 많은 국제 전시회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출품업체들은 최신 혁신, 특히 지속 가능성 및 순환성 분야의 혁신을 전 세계 관람객에게 직접 선보이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전시 홀 계획에 이어 각 출품업체들의 부스 배치도는 오는 7월 6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ITMA 2023 Sector plan

<출처 : TIN 뉴스>

무역 및 시장정보

중국, 화섬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 공표

최근 중국공업정보화부(中国工业情报化部),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员会)는 공동으로 「중국 화학섬유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을 공표하였다.

이 지도의견은 2025년까지 화섬산업의 발전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바이오매스섬유의 확대를 포함한 Green 섬유(환경대응형 섬유)의 발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밖에 탄소섬유, 아라미드섬유 등 고성능섬유의 발전, 에너지 절감, 리사이클 추진, 표준화 추진, 브랜드 전략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중국공업정보화부는 중국의 화섬산업은 섬유산업 체인의 발전과 지속적인 혁신을 뒷받침하여, 국제적으로 경쟁우위 산업으로서 신재료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구성부분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화섬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여 보다 강력한 이노베이션, 고부가가치, 안전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형성함으로써 섬유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고도화하는 소비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도의견의 개요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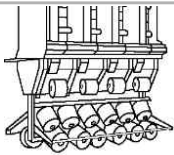
① 기본원칙

- 이노베이션 주도
- 지역배치 최적화, 국제협력 강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노후 생산능력 퇴출, 기업 합병의 재편, 리딩기업의 육성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
- Green 발전, 순환-저탄소제조시스템 추진. Green 공장, Green 제품, Green 공급망을 추진하여 폐기 자원의 리사이클을 강화하고, Green 섬유 생산을 확대하여 Clean, 저탄소, 순환의 Green 제조시스템을 구축
- 양질의 제품공급을 늘리고, 고성능 섬유의 생산 및 용도 개척을 추진하며, 유명브랜드를 육성하여 전략적인 신흥산업의 발전을 뒷받침

② 발전목표

- 2025년까지 규모 이상 화섬기업의 공업증가치 (GDP에 상당)를 연평균 5% 이상 성장
- 이노베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화섬업계의 연구개발비 투입비율을 2% 이상 증강시킴. 고성능 섬유의 연구개발능력은 국가 전략수요를 충족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여 기업경영관리의 디지털 보급률을 80%로 확대하고, 주요 공정의 디지털 화율을 80%로 확대
- Green 제조시스템을 개선하고, Green 섬유의 생산비율을 25%이상으로 확대하며, 바이오 화학섬유와 생분해 화학섬유의 생산량을 연평균 20%이상으로 확대
- 폐기자원의 이용 수준을 발전시켜, 업계의 탄소배출을 삭감시키고, 경쟁력 있는 리딩 기업을 육성

<출처 : 한국화학섬유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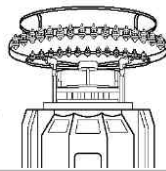


KOTMA 한국섬유기계협회 회원가입 안내

담당 : 조성환 상무이사

문의 : 053-817-5954

대상 : 섬유기계 및 관련부품 제조사



■ Grabher, 폐마스크를 기름 흡착포로 재활용

오스트리아의 섬유 제조업체인 Grabher는 동국의 종합 화학업체인 Borealis와 폐마스크를 기름 흡착포로 재활용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동사는 정수필터와 공기정화필터, 의료·헬스케어용 섬유를 생산하는 리딩 업체로,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마스크공급이 부족했을 당시 오스트리아에서 최초로 마스크를 생산한 업체이며, 마스크 원자재인 폴리프로필렌(PP) 멜트블로운 부직포를 Borealis로부터 공급받았다. 코로나 장기화로 늘어나는 폐마스크는 또 다른 환경문제를 일으킨다. 동 프로젝트는 현재 개발 단계이지만 폐마스크를 수거, 분류, 세척, 살균, 건조 후 멜트블로운 공정을 거쳐 기름흡착포로 재활용할 수 있다. 동사는 폐마스크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자원순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처 : 한국화학섬유협회>

■ 세계은행, 2022년 면화가격 40% 상승 전망

세계은행의 원자재지수에 따르면 2020년 5월 이후부터 이어진 면화가격의 상승 추세는 2022년 4월, 11년 이래 최고가를 갱신하였으며 금년 최대 40%까지 상승이 전망된다.

또한, 동 은행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1970년대 이후 50년만의 「물가 충격」을 경고하기도 했다. 국제 면화가격 상승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이상 기온에 따른 공급 불안정, 이 2가지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또한, 인도가 자국 내 면화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면화가격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2022년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2022 ~ 2023년 면화 생산량이 전년대비 8.4% 증가하여 2023년에는 면화가격 안정화가 예상된다. 미국과 브라질의 시장점유율은 20%대를 유지하겠지만, 세계 최대 면화 생산국인 중국과 인도의 생산량은 이상 기온으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면화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이상기후에 따른 면화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인해 대표적인 대체재인 화학섬유로 수요가 전도될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화학섬유는 기후변화에 따른 공급변동성 리스크 헤지(Hedge)가 가능한 상황이다.

<출처 : 한국화학섬유협회>

■ 섬유기계 수출·입 실적 (2022년 1~3월)

		수 출	수 입
금액 (천\$)		563,133	212,832
국 가 별	중 국	30,285	116,485
	미 국	303,614	2,044
	일 본	5,172	6,859
	베트남	34,656	43,437
	유럽(계)	24,743	15,552

산업계 소식

과테말라 의류섬유협회와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섬유기계협회 손종규 회장은 지난 5월 26일 「과테말라 섬유분야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사업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기관 : 경북테크노파크, 참여기관 : 다이텍연구원]과 연계한 과테말라 출장 중 과테말라의류섬유협회(VESTEX) 전시관 미팅 룸에서 한국섬유기계협회와 과테말라의류섬유협회간의 업무협약서에 서명하였다.

이번 과테말라의류섬유협회(VESTEX)와의 업무협약은 ① 사업 분야에서의 수출입 활성화, 투자 유치 및 조직과 관련된 국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모든 활동, ② 기술 교류를 위한 협력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③ 과테말라 현지 중소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사업 수행 시 공동 지원, ④ 인력 역량 강화 및 조직 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 ⑤ 조직의 상호 발전을 위해 당사자가 합의한 기타 영역 등에 대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과테말라 섬유분야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 사업은 한국의 섬유기술 전문가가 현지 섬유기업 11개사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기업별 맞춤 컨설팅 실시를 통한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우리 협회 손종규 회장, 경북테크노파크 하인성 원장, 과테말라의류섬유협회 Carlos Arias 이사장, Luis Oscar 협회장 외 여러분이 참석하였다.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

베트남, RCEP을 통한 수출 규모 확대 기대

2022년 1월 1일부터 베트남에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5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RCEP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베트남의 주요 수출품목에 정보기술, 섬유의류, 농업, 자동차, 통신기술 등이며, 다가오는 20년 안에 RCEP 회원국들 사이 약 90%의 관세가 철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6-7%의 수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베트남의 중소기업들은 전체 기업의 98%를 차지하고 국내총생산(GDP)의 40%를 기여하며, RCEP이 중소기업들의 수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RCEP의 영향으로 베트남과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수출 경쟁이 증가될 전망이며, 중국의 저가 제품들 또한 베트남 국내 시장에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후략>

<출처 :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소식

폐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전환형 마이크로그리드 기술 개발을 위한 「미활용 에너지 활용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융복합 기술」 개발 및 실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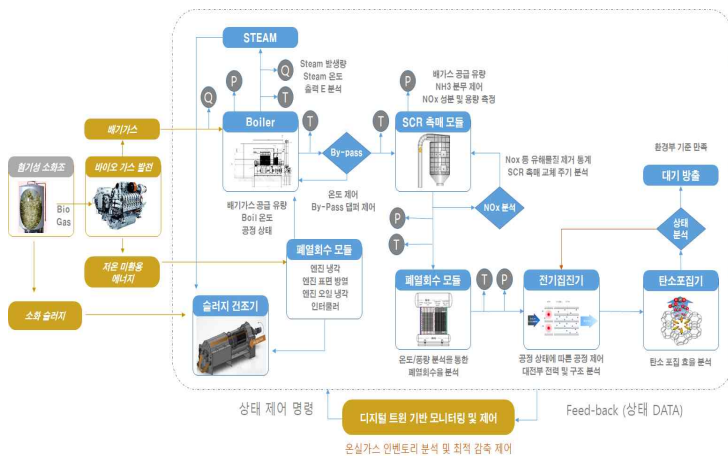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원장 성하경) 은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사업인 「산업단지 폐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형 (전기·열) 마이크로그리드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의 2세부 「에너지 회수 향상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융복합 기술 개발 및 실증 연구」 사업에 주관기관인 (주)포원시스템 (대표 권오대)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 인식이 증대되면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폐기물의 자원화 기술과 이를 이용하는 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바이오가스 발전, 발전효율 극대화를 위한 미활용 에너지 및 폐열회수, 탄소포집 기술 그리고 디지털 트윈 에너지관리기술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개발에서는 염색산업단지 내의 폐자원(염색 슬러지)을 이용한 1차 에너지 전환 후 발생하는 배기가스 폐열회수를 위한 SCR촉매 일체형 보일러 시스템 개발과 열전발전 시스템을 이용한 미활용 에너지 활용기술, 배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 포집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확보하고 디지털 트윈 구축을 통한 폐열회수시스템 운전의 스마트화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등이 포함된 기술 개발을 (주)포원시스템과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이 함께 개발하고 있으며,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대경에너지, 영남대학교, 다이텍연구원,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산업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 미활용 에너지 활용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에너지 생산 비용절감 및 마이크로그리드 규모의 산업단지 내 에너지 자립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며, 향후 국내 설치된 약 101개소의 유기성 폐자원 처리시설에 본 기술이 적용된다면 버려지는 에너지의 20~30%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활용 에너지 회수를 위한 시스템 개략도

<출처: 에너지시스템연구센터 구경민 선임연구원>

▪ 2022년 제조로봇 선도보급 실증사업 협약 체결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원장 성하경, 이하 KOTMI) 은 5월 10일 KOTMI 4층 소회의실에서 「2022년 섬유산업 제조로봇 선도보급 실증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섬유산업 제조로봇 선도보급 실증사업」은 제조로봇 경쟁력 제고 및 시장 확대를 위해 섬유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로봇도입 실증사업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사업 책임자인 KOTMI 기계로봇연구센터 이재용 센터장을 비롯한 수요처 8개 기업과 공급처 4개 기업이 참여하였다. 수요처와 공급처 기업은 대구, 경북, 경남, 경기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협약식에 참가한 12개 기업 중 수요(섬유) 기업은 동원, 영신물산, 나경, 서원테크, 펫트하이텍, GH신소재, 원풍물산, 대방이고, 공급(로봇 SI) 기업은 포원시스템, 하이젠모터, 이루에프에이시스템, 오토로보틱스이다.

KOTMI에서는 2019년부터 섬유산업 표준공정모델을 개발하여 2020년에 6개의 공정을, 2021년에는 13개의 공정을 실증 완료하였다. 2022년에는 12개 공정을 실증 완료할 계획이며, 2024년까지 제조로봇 선도보급 실증사업을 수행할 예정으로 로봇산업과 섬유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2년 제조로봇 선도보급 실증사업 협약 체결 현장 사진

<출처 : 기계로봇연구센터>